



# 관덕정

2017년 12월 26일(통권 제82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 기다리던 아기에수님

# 제27회 성 이윤일 요한제에 초대합니다.

www.daegusaint.org

## 제27회 성이윤일 요한제

2018. 1. 12~21 / 관덕정순교기념관

**2018 성 이윤일 요한제 9일 기도**

**주제**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시오. (1베드 1,22)

일 시	강 사
12일(금) 14: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3일(토) 16:00	안광훈 로베르토 신부 - 성광왕인대장신교회
14일(일) 16: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5일(월) 14: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6일(화) 14: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7일(수) 14: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8일(목) 14: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9일(금) 14:00	이찬우 타대오 신부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20일(토) 16:00	배형진 야고보 신부 - 발암의 선교수도회

**성 이윤일 요한 순교 기념미사**

**일시** 1월 21일(일) 17:00 / 관덕정순교기념관

**주제**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관덕정순교기념관 ☎ (053)254-0151**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시오.” (1베드 1,22)

스물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성 이윤일 요한제는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시오.”라는 주제로 1월 12일(금)부터 9일 기도로 시작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찾아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I.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9일 기도 특강과 미사

일 시 : 2018년 1월 12일(금) ~ 20일(토)

장 소 : 관덕정순교기념관

일 정

날 짜	시 간	특강과 미사	기도지향
1월 12일(금)	14: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사랑
1월 13일(토)	16:00	안광훈(로베르토) 신부님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기쁨
1월 14일(일)	16: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평화
1월 15일(월)	14: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인내
1월 16일(화)	14: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친절
1월 17일(수)	14: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선행
1월 18일(목)	14: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진실
1월 19일(금)	14:00	이찬우(타대오) 신부님 -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온유
1월 20일(토)	16:00	배형진(야고보) 신부님 - 말씀의 선교수도회	절제

## II. 성 이윤일 요한 순교기념미사

일 시 : 2018년 1월 21일(일) 오후 5시

주례 -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

장 소 : 관덕정순교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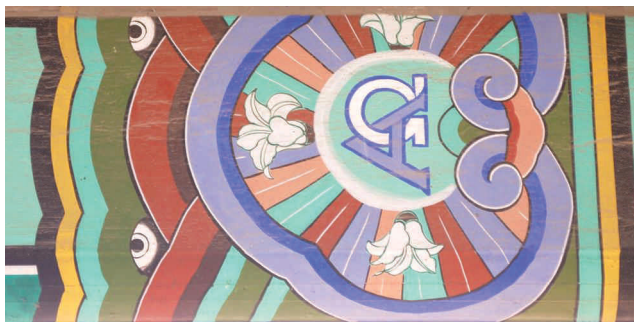
## 관덕정 단청에 관한 고찰 (3)

박 현 수

전 동국대 겸임교수

본 기념관 단청 시공 설계자

8. AQ: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A)와 끝 글자(Q)를 나타낸 말로써 ‘처음과 나중’, ‘완전함’, ‘충만함’, ‘전 존재’ 등을 상징한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느님 자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하느님은 창조자시고 완성자시며, 유일무이하시며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뜻하는 말이다.

8-1. 백합: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복된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는 백합이 대표적이며 경우에 따라 달(상현달), 또는 닳을 사용하기도 한다.

8-2. 눈동자: 눈동자는 하느님 아버지, 즉 성부를 의미하며 전지전능하신 분을 상징한다.

이 문양은 여의如意를 상징하는 전통적 문양과 AQ, 백합, 눈동자, 오색의 서광瑞光을 조합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도리와 창방부재에 시문하였다. 따라서 이 문양은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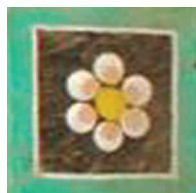
고 동정 마리아를 찬미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9. 구름 : 구름은 구약의 하느님 발현 때부터 때로는 어두운 구름으로, 때로는 빛나는 구름으로, 그 초월적 영광을 덮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한다. 예컨대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만남의 장막에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구름이 덮였다. 따라서 구름과 빛, 이 두 상징은 성령의 발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구름 문양은 건물 하부에 있는 ‘개자각’이라는 부재의 윤곽을 맞추어 구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구름 표현은 관덕정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관덕정이 천상에 떠 있는 듯한 건축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10. 칠점七點 : 일곱 개의 점은 칠각별을 도안화한 것으로 성령칠은聖靈七恩을 의미한다. 성령칠은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생명의 은총으로 믿음과 바람과 사랑의 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일곱 가지 도움의 은사를 주시는데,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경외를 말한다. 이 문양은 전통적인 매화꽃 문양을 서로 연결하여 칠은이 상호 유기적이면서 일체적임을 표현하고 있다.



11. 십자가 예수상 : 예수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 형장인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근에 바위를 파 만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힐 때까지 마지막 여정인 ‘십자가의 길’을 표현한 문양으로 예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공의 실현을 상징한다. 가톨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심 수련 중 하나

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여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재현하면서 수난 사건들을 묵상하는 14처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 문양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과 여러 십자가를 서로 결구한 전통문양, 그리고 성체를 상징하는 포도를 조합한 문양으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재인 대들보에 시문 되었다.



## V. 맺음말

관덕정은 조선 말, 이윤일 요한 성인을 비롯한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곳으로, 순교자의 순교 정신을 함양하고 신자들의 신앙 재교육과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념관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이러한 가톨릭 건물에 전통적인 오방색을 사용하여 단청을 한 곳은 관덕정이 유일한 예로서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은 보기 드문 예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교의 상징적 문양을 전통적 문양과 색채로 치환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와 그리스도교의 교리적 내용을 조화롭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전통단청의 개념을 확대시킨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누樓’라는 전통건축의 양식을 배려하여 복잡한 문양을 지양하고 문양과 문양 사이를 여백으로 남기는 단순 명쾌한 단청을 지향함으로써 건축이 추구하는 공간의 확대성과 구조미를 잘 살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색채 역시도 전통의 강렬한 오방색의 정색을 자제하고 절제된 간색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적 미의식을 반영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관덕정의 단청은 가톨릭의 이념을 표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종교미술로서의 가치와 전통건축이 갖는 고유의 객관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예가 발생할 경우에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부 천장 양쪽의 반자 부분이 비어 있어 이 부분에 순교기념관이라는 건축적 이미지와 걸맞은 천정 벽화가 그려지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끝)

# 엄마 냄새가 그림다

(네 신부님의 어머니 / 이춘선 지음 / 바오로딸 2017)

책장을 넘길 때마다 엄마 냄새가 소록소록 배어나는 느낌이다. 그 냄새는 언제나 내겐 따끈한 아랫목이며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하는 식혜 같다. 조금 더 어머니의 삶이 이해되고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값지게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아마 자녀들이 어머니가 남긴 글을 엮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 연유도 이 때문인가 싶다. 책이 전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세상의 지식과 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충실하게 빚어낸 것이라 생각한다.

이춘선 마리아 어머니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신앙 서적으로 한글을 익히고 교리를 배웠다고 한다. 그렇게 배운 교리로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하고 신부님들의 사목에 협력했다. 신자인 남편과 공산당의 신앙박해를 피해 강릉으로 이사와 맞벌이를 하며 7남 1녀를 양육했다. 그중에 네 명을 신부로 고명딸을 수녀로 봉헌했다. 그런 과정들을 담은 일기와 기도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가 사진과 함께 엮여졌다. 중간 중간에 막내아들 오세민 신부가 들려주는 일상의 어머니 모습은 모성 안에 녹아든 신앙의 향기를 더해준다.

“사제품을 받고 첫 부임지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내게 서품 선물이라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줬다. … 그 보따리 안에는 장롱 속에 차곡차곡 보관해 둔 내 갓난아기 적 배냇저고리와 한두 살 무렵 입던 작은 옷가지들이 편지와 함께 개켜져 있었다. 학교에서 글을 배운 적이 없는 늙으신 어머니가 한 자 한 자 꺾꺾 눌러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신부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198~199쪽)”

평신도 성년을 지내는 한국교회에 참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순교성인들이 이룩한 신앙의 문화를 누려오기만 한 우리가 이제는 오늘의 신앙 문화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향유하는 소비가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는 때라고 어머니는 가만히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하다. 충만한 위로와 토닥임과 함께 따끈한 충고도 담고 있어 더욱 정겹다.



## “성 이윤일 요한”을 읽고

황 채 연(그라시아)  
만촌1동 성당

“채연아, 이 책 한 번 읽어봐, 감동적이고 참 재미있어.”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 나에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는 호기심에 못 이겨 하던 숙제를 놔두고, ‘성 이윤일 요한’이라고 적힌 책을 집어 들었다. 첫 표지와 책의 굵기는 웬지 광고 같아 보였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잡지나 광고 같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이윤일 성인이 순하고 똑똑하게 태어나고 자라는 내용이어서 ‘이게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재미있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재미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밤을 새워 읽어버렸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힘겹게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예전에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누가 와서 선교를 해주신 게 아니라 천주교를 공부하던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종교란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아.’라고 하신 적이 있다. 그때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책을 읽어보니 이윤일 요한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조상들이 천주교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천주교를 버리라는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마음 아프기도 하였다. 순교 성인들이 도대체 무얼 믿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이윤일 요한 성인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 순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곧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슬프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이윤일 요한 성인이 자신은 순교할

수 있지만, 가족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테니 말이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시대에 끝까지 꾀끗하게 천주교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그리고 이윤일 요한 성인의 아버지께서도 천주교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다. 천주교를 박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을 올바른 천주교인으로 키워내겠다는 생각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자신의 굳은 믿음으로 천주교에 대한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도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으니, 이윤일 요한 성인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순교까지 하시게 된 것 같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사를 다니셨다. 특히 충청도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박해를 피해 경상도 지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마르타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천주교 학문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셨고, 공부한 천주 학문을 천주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애를 쓰셨다. 그리고 동료들, 신부님들, 아버지, 아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하느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며 사셨다. 책을 읽으면서 포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하였다. 그리고 언젠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의 힘을 빌리려고 프랑스인 신부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너무나무 아쉬웠다. 프랑스인 신부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천주교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순교하는 분들도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여우목에서 천주교 회장을 하며 사시다가 여러 번의 위험을 겪고, 결국은 끌려가셨다. 그때에



는 울지도, 그렇다고 웃지도 않으시고, 아주 평화로운 눈빛과 마음으로 끌려가셨다고 하였다. 나는 이윤일 요한 성인이 끌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웠다는 부분에서 매우 많이 감동받았다. 나 같으면 평화롭게 가지 못하고 엉엉 소리 내 울면서 겨우겨우 끌려갔을 것이다. 이윤일 요한 성인 일행과 함께 끌려가는 할머니를 별 이유도 없이 때려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밍기도 하였다. 또 이윤일 요한 성인의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때리고 고문시키는 사또도 매우 미웠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감옥에서도 죽은 손녀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원래 하시던대로 아침기도, 삼종기도, 저녁기도, 봉헌경 등을 바치셨다. 나 같으면 아마 더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윤일 요한 성인은 감옥에서도 정말 훌륭한 천주교 신자로 사셨고, 많은 고문을 겪으시고 순교하셨다. 이윤일 요한 성인이 순교하려 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때, 가족들은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였지만, 이윤일 요한 성인은 오히려 달래면서 평화롭게 미소를 지으셨다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아니, 사실 나는 그런 이윤일 요한 성인이 아주 존경스럽고 신기하였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죽일 회광이에게까지 자신의 남은 돈을 주었다. 그리고 먼저 순교한 동료들, 신부님들, 아버지, 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평화롭게 순교하셨다. 사실 나 같으면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면 끝까지 천주교를 믿겠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천주교를 포기했을 것이다. 이윤일 요한 성인의 아버지가 끝까지 천주교를 믿으셨고, 이윤일 요한 성인도 그렇게 하셨지만, 아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이 장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윤일 요한 성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윤일 요한 성인과 같은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성녀들 덕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천주교를 끝까지 믿다가 그런 이유로 순교하신 이윤

일 요한 성인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우리나라에 이윤일 요한 성인과 같은 순교 성인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천주교를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주교를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 말씀으로는 진짜 종교는 평범한 사람이 보았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종교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믿는 천주교는 ‘진짜 종교’인 것 같다.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바르게 살라고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신부님이 신천지 종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엄마는 그 종교는 일도 가정도 버리게 하는 종교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보았을 때 이상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옳지 않은 종교라고 말씀을 하셨다.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가 천주교라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천주교를 믿을 수 있게 한 순교 성인들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윤일 요한 성인과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천주교를 믿지 못했을 것이고, 하느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 말이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성당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한 번씩 주일미사 보기가 귀찮다는 생각을 한 것이 참 부끄럽다. 내가 천주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살고 있었다면 편하게 천주교를 믿지 못했을 것이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편하게 성당에 나가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하늘나라에서 참 기쁘실 것 같다. 우리나라에 하느님의 종교가 생겼으니 말이다. 나도 이윤일 요한 성인처럼 천주교를 끝까지 믿고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 교회사 강좌

10월 14일(토) 이영춘(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에 현재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선택하기 위해 산속 교우촌으로 이주한 신앙 선조들은 오직 신앙생활이 중심이었다. 늘 하느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마음 안에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내용이 들 어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말씀 생활, 성사 생활에 임했던 신앙 선조들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해주셨다.



이영춘(사도요한) 신부님



김경수(사도요한) 신부님

11월 4일(토) 나바위 성지 김경수(사도요한)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나바위는 김대건 신부님 일행이 조선에 와서 첫발을 디딘 곳인데 바다 위에서 40일을 표류하다가 나바위에 도착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시며 페레올 주교님의 편지에서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던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다. 하느님의 섭리, 이끄심은 172년 전 나바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하느님의 배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세속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를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순명하도록 노력하자는 바램을 전하셨다.

## ■ 관덕정 한국천주교회사 강좌 개설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는 2018년 3월부터 한국천주교회사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강의는 한국천주교회사를 전공한 이찬우(타대오) 관장신부님께서 맡게 된다. 한국천주교회의 지나온 발자취와 신앙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다. 후원 회원을 비롯한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 대림영성특강

12월 2일(토) 한전(도미니코) 신부님의 특강이 있었다. 신부님은 현재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느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의를 이어가셨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계시는데 하느님께 부끄럽지 않게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순교자들의 삶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된 것이라고 전하셨다. 순교자들의 자발적인 순교 정신, 자발적인 교회 활동, 교우촌에서 사랑의 실천, 교회에 대한 충실성이 남아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적 심사 없이 103위 성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03위 성인의 후손이라면 최소한 이 네 가지는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고 현대에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한전(도미니코) 신부님

## ■ 국내성지순례

지난 10월 15일(일) 순례객 44명이 배티성지를 순례하고 11월 19일(일)에는 새남터 성지를 순례했다.



배티성지



새남터성지

##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 평생 회원

故강석두	故강승찬	故강하선	故권태홍	故김교안	故김대천	故김두준	故김복태
故김분기	故김소록	故김송희	故김시묵	故김옥희	故김정숙	故김태연	故김필경
故김형동	故김화오	故문명희	故문우하	故문종삼	故박봉의	故박선봉	故박수근
故박해숙	故사기학	故서강진	故서종택	故소분달	故소점순	故신상호	故오병찬
故은정선	故이금석	故이봉순	故이상옥	故이윤득	故이은진	故이정순	故이중기
故이춘삼	故임태건	故정외남	故정지영	故정창규	故조중연	故최건이	故최길쇠
故최상득	故최성득	故최태수	故편무희	故홍명순	故홍점암	故황순덕	
김덕수	김순자	김영미	김영신	김용수	김윤희	김재훈	김준우
노병용	마복남	박명숙	백낙도	서항자	손정순	신명자	안바울라
엄순덕	우정돌	윤희진	이문자	이상문	이영숙	이우영	이윤겸
이태희	이혜정	임애자	임한순	한소희	한순화	허재금	홍주식
황시영							

### 가족 회원

강승화가족	권미정가족	권오분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복자가족
김순일가족	김영숙가족	김일성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필여가족	김희정가족	류운순가족
류진춘가족	마윤희가족	문정숙가족	문정인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선희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원석가족	박이순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정미가족	박종만가족	박종출가족
박현수가족	박화수가족	배병훈가족	백덕흠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춘자가족	신기운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여경희가족	염경순가족	오재동가족	오재명가족	오재호가족
윤명섭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희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경희가족
이남옥가족	이상진가족	이성희가족	이수자가족	이종우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장원환가족	전남숙가족	전순자가족



전정숙가족 정계희가족 정명숙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성재가족 조영학가족 지유진가족 최주영가족 홍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 일반 회원

김경록 김경순 김덕순 김분이 김지혜 김혜숙 박덕향 박정련 박태분 박효숙  
 배순득 배정자 백영진 성경훈 성진현 신경숙 안복희 오경자 오성자 이성신  
 이성희 이우인 이윤홍 이정호 임윤자 장임석 전기엽 전화선 정연숙 제현희  
 조성경 천정숙 한철호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1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 A portrait of a Korean Christian leader, likely a pastor or evangelist, dressed in traditional white Korean clothing (hanbok). He wears a black traditional Korean hat (gat) and has a full black beard and mustache. He is holding a wooden cross in his hands. The background is a solid dark color with a large, faint, circular halo-like shape behind his head.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 ■ 후원금 납입방법

- ##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